

주요개념 : 약물, 약물사용, 고등학생

## 고등학생들의 일반의약품 사용 및 관련요인 분석

이 소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약물사용의 문제는 사용계층의 일반대중으로의 확산과 사용연령의 하향화 추세를 포함해 그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시되는 약물에는 히로뽕, 대마초, 코카인 등을 비롯한 마약류와 본드, 가스 등의 휘발성 매체 그리고 일반 대중의약품이 포함된다. 마약류와 유기용제 및 흡입제의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적 규제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 및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남용될 경우 그 폐해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은 구하기 쉬운 본드, 가스 등의 휘발성 매체와 엄격한 규제가 어려운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이며, 더욱이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각종 약물들을 혼합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의 엄격한 규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공급을 차단한다하더라도 예방 및 치료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기존의 약물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약물관련 연구는 음주, 흡연에 관

한 연구와 비행청소년들 대상의 마약류 및 흡입제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 약물사용에 관계하는 직·간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일반의약품의 남용에 관한 별도의 연구는 드물었음을 생각할 때, 일반의약품의 남용실태 및 약물의 혼합사용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일반의약품의 사용양상을 파악하고 일반의약품의 사용에 관계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의약품 사용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일반의약품사용양상을 파악한다

둘째, 일반의약품사용과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검정한다

셋째, 일반의약품사용에 관계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동남보건전문대학 강사, 안산전문대학 강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

### 1) 약물 (drug)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의 개념 외에 인간의 정신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substance) 전반을 총칭한다. 이는 인간의 건강, 사회적, 경제적인 기능을 손상시키고 위협하는 물질로서 술, 담배, 합법적인 약, 유기용제, 음식까지도 포함하는 범주이다.

### 2) 일반의약품

의학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약물로서 의사의 처방없이 자의에 의해 사용하는 약물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드링크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를 말한다.

### 3) 약물사용(drug use)

처방없이 약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약물사용이란 WHO에 의한 것으로 행동, 인식력, 그리고 감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자의에 의해 약물을 불법적,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약물은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드링크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제한하였다.

### 4) 혼합사용

동일한 시기에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동일한 시기란 1년을 기준으로 정하여 정의하였다.

## 5. 연구 제한점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을 표본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 II. 문헌 고찰

### 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은 원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 약물남용 행위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 젊은이들에 의해서 전세계에 퍼졌다(주왕기, 1990).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야편으로 시작하여 70년대에는 대마초, 80년대에는 히로뽕, 90년대에는 분트 및 가스 등 유기용제와 대중의

약품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복용자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복용 계층이 점차 연소화되고 있으며 더이상 그 대상이 폭력 집단,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원, 가정주부, 청소년 등에까지 확산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박명윤, 1990).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흡연율은 1993년 42.3%에서 1996년 42.9%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자의 흡연율은 1993년 11.9%에서 1996년 19.3%로 7.4%나 증가하였고 음주, 흡연을 포함한 약물사용을 물질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흡입제 16.5%, 각성제 13.3%, 신경안정제 6.0%, 음주 71.1%, 흡연 53.0%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부, 1996).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주율 86.6%, 흡연율 37.9%, 흡입제 1.9%, 각성제 19.0%, 신경안정제 5.4%로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이소영, 1997).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미국의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성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미국이 월등히 높지만(대마초 32.4배, 0.8% : 25.9%, 환각제 12.7배 0.6% : 7.6%, 코카인 12배 0.5% : 6.0%), 유독성 화학물질의 남용이나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약물의 사용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흡입제 2배 8.4% : 16.5%, 각성제 1.2배 11.0% : 13.3%, 신경안정제 1.7배 3.6% : 6.0%, 흡연 1.8배 : 29.6% : 53.0%, 음주 1배 71.8% : 71.1%)(문화체육부, 1996). 이는 고복자(199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남용하는 약물은 술, 담배, 카페인계통의 각성제, 진통제, 진정제, 흡입제, 진해제의 순으로 조사된 것과 같이 술, 담배를 제외하고는 진통제, 각성제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유독성 화학물질이란 유기용제 및 흡입제 등이며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약물이란 일반의약품을 일컫는다. 이들의 사용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약물의 법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과 약물의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성인들의 무책임성과 물지각성 등을 지적해 주는 것이

문제부는 지난 7월 1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유희약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시행령을 신설하여 약물의 공급이 차단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약물의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예방과 치료의 노력이 병행

되지 않는 한 약물을 찾는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물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다

## 2. 청소년 약물남용의 영향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과정으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2차 성장을 포함한 신체적 발육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기간으로 기본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과 적응장애를 많이 일으킨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확립,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의존에 대한 상충된 욕구 등으로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기며 또래집단의 압력을 무척 많이 받는 시기여서 특히 약물의 유혹에 취약한 시기이다(최선희, 1991; 보사부, 1993). 이러한 발달단계적인 과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서울시 교육연구원, 1988)

Moos와 Billing (1982)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볼때 약물사용자들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택하며, 이러한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의 하나로써 약물을 선택하게 되면 발달과업으로 달성해야 하는 대인관계기술, 인지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기술 등의 훈련과 습득을 방해받아 심리 사회적인 능력 및 갈등해결기술이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 약물남용 분야에서 “약, 약물, 물질” 등의 단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약물이라고 사용하며 여기서 사용되는 중독 (addiction)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명이 위협해지기까지하는 의미의 중독이 아니라, 모든 일상사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약으로 이를 해결하려하는 등 약물에 집착하고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절하기 힘들어지는 현상등을 의미한다(문화체육부, 1993).

비행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보면, 각종 약물사용 경험자들이 비경험자들에 비하여 흡연의 경우 4배, 음주의 경우 약 6배, 본드의 경우 약 3배 정도 비행경험도가 높았다(주왕기, 1990). 또한 김성이(198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청소년들은 13세에 피로회복제 남용으로 약물남용과 흡연이 시작되며 14세에 진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각성제, 음주, 본드를 사용하고 15세에 대마초, 신경안정제, 16세때는 최면제 사용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비행행위에는 흡연시작후 무단결석이 따르고

금품을 갈취하며 14세에 반항과 가출, 15세에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흥기를 소지하면서 후반에는 술집 출입, 경찰에 보호사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 볼때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비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비행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약물사용을 발견하거나 약물사용의 위험을 알려주어 예방한다면, 비행으로 인한 파멸이나 약물의 중복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의약품 남용의 위험은 엄격한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중독이 되고 다른 약물을 혼합사용하기까지 그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약광고를 통해 약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어디서든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어 약물사용의 기회를 계속 제공받아왔다는 사회적인 배경이 청소년들에게 일반의약품의 남용과 혼합사용 및 중독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독성 화학물질의 남용은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며 간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시력장애와 기억력 상실, 근육마비, 체중감소 등을 일으키고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진정제의 남용은 정신적으로는 추론능력의 감소, 시간과 공간의 왜곡, 기억상실 등이며 신체적 영향으로는 졸리움, 현기증, 시야몽롱, 수면, 호흡억제, 혈압장애, 혼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각성제의 남용은 중추신경흥분작용으로 수면장애, 우울증, 무력감, 피해망상, 환각 등이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제의 남용은 구갈, 식욕상실, 환각과 망상, 혈압상승, 이상한 행동, 정신병적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약물을 복합사용하면 약물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1).

물론 약물남용문제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연령층에서 행해져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선진외국에서도 현재 성문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서울시 교육연구원, 1988). 그럼에도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기가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기로서 이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주체성이 확립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약물남용을 시작하면 급속도로 중독에 이를 수 있고 나아가 쉽게 여러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하게 되어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복자, 1991; 김현수, 박인철, 1989).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의 심각성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전세계적으로 연령의 하향화현상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으며, 둘째, 일단 약물남용을 시작하면 급속도로 중독에 이르게 되며, 셋째, 약한 약물에서 시작하지만 차츰 더 강한 약물로 빠르게 진행되고, 넷째, 발달과정에 있는 미숙한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상태에서 쉽게 판단능력이나 자제력을 상실하여 난폭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다섯째, 청소년기는 급성장기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건강에 미치는 해독은 치명적일 수 있고, 여섯째, 내성이 생김에 따라 용량증가로 사망할 수 있으며, 일곱째,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폐인이 된다는 점이다(고복자, 1991).

### 3. 약물남용 관련 요인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소산이라고 간주한다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그들의 환경적 배경을 잘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관계전문가들이나 임상전문가들도 청소년의 약물남용 행위는 그들의 환경내의 어떤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적 성향(유전적 요소)과 발달 및 성장과정상의 결함, 성격발달상의 문제 등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약물남용이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만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시 교육연구원, 1988).

현대 사회의 가속적 추진력은 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연결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가지 혜택들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왔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명발달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노인 문제,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정신질환의 증가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초고속 정보화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이라는 질환이 등장하게 되었다.

부단히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증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사기행각 및 범죄, 상상하기조차 잔혹스러운 인권유린적 범죄들, 극단적 사이버 종교의 증가, 지존파, 막가파의 등장 등 최근 사회양상들은 혼동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과 더불어 학생들은 지식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자기표현이나 욕구를

억압당하고, 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학에 대한 어려움과 직업조기,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김미희(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유발된 가치관의 혼동과 정서적인 장애들이 청소년에게 약물사용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입시위주의 강박관념은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을 선택, 사용, 의존, 남용하게하는 중요한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Herberty(1978)는 청소년의 약물사용 결정은 대부분 경험에 근거하며 의도적인 흥분이나 각성, 기분변화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고, 청소년을 포함한 약물사용자들의 약물선택 이유는 이들은 '빠르고 쉬운(quick and easy)' 문제해결을 원하고 약물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작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백명기(1981)의 약물사용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기분이 편안해지기 위해' 또는 '피로움을 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52.2%) 보고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일반의약품의 해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용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1).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38개 고등학교를 추출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들로부터 단 한 번의 자료수집을 하여 관련연구문제를 분석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184개교 351,7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1단계로 서울시 25개 지역구에서 19개 지역구를 임의추출한 후 각 구에서 남학교 1개, 여학교 1개를 임의추출하여 총 38개교(20.6%)를 추출하였다. 2단계로 각 학교의 최종 학년 1학년씩을 선정하여, 38개 학교 전체 학생수의 2.67%인 1,900명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 3. 연구 도구

연구의 도구는 문화체육부와 한국청소년학회가 93년

개발한 표준화된 설문지에서 선별하고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친구의 약물사용유무, 부모의 약처방 준수유무, 처음사용시기, 혼합사용유무, 각각의 약물사용유무, 지난달 사용유무, 약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 총 48문항이다. 1차 8명을 대상으로한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을 수정, 보완한 후 10명을 대상으로 2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및 구성의 타당성을 수정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199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453중 불성실한 응답자 41부를 제외한 1,412부(74.3%)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일반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적 방법으로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일반의약품 사용과 관련변수간의 관계는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분포는 남자 689명(48.8%), 여자 723명(51.2%)이었고 연령분포는 조사대상이 고3이므로 평균연령은 만 17세였다. 성적은 상 328명(23.7%), 중 662명(47.8%), 하 396명(28.6%)이었고, 경제생활수준은 상 329명(27.2%), 중 783명(64.6%), 하 100명(8.25%)이었다. 자신, 친구, 가정, 학교, 사회, 국가로 6개 범주에서 각각에 대한 불만유무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라도 불만이 있는 경우가 1,281명(90.7%)이며, 평균 불만대상수는 2.6개이었다. 흡연율은 49.8%, 흡연율은 22.1%, 일반의약품 사용율은 진통제 33.3%, 수면제 4.3%, 각성제 8.7%, 신경안정제 4.4%, 드링크제 46.7%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시기에 한 가지 이상의 약품을 사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242명(24.8%)의 학생들이 혼합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약에 대한 태도에서는 581명(41.4%)의 부모가 약복용 처방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으며 친구

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약물별로 조사한 결과 진통제 139명(11.7%), 수면제 91명(7.7%), 각성제 76명(6.4%), 드링크제 200명(16.8%), 진해제 8명(0.7%)로 조사되었다. 약물에 대한 법적인 통제 필요유무에 대해서는 1,145명(81.1%)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53명(36.1%)의 학생이 약물에 대한 유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약물사용실태

1) 일반의약품 사용율

사용경험은 드링크제 330명(67.9%), 진통제 216명(44.4%), 각성제 9명 (19.0%) 수면제 37명(7.6%)의 순이었다. 드링크제와 진통제의 경우 광고에 의해 쉽게 약물에 친숙해지고 구입이 용이한 것이 사용율을 높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사용율도 드링크제 227명(46.7%), 진통제 162명(33.3%)이 다른 약물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약물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각성제 17%, 안정제 2.3%, 진통제 33.6%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볼때 진통제, 안정제의 사용이 다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주왕기, 1990 ; 김소야자, 1993). 각각의 약물별로 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표 1> 약물사용 비율

| 약물명  | 경험율       | 현재 사용율    | 계   |
|------|-----------|-----------|-----|
| 진통제  | 216(44.4) | 162(33.3) | 486 |
| 수면제  | 37( 7.6)  | 21( 4.3)  | 486 |
| 각성제  | 92(19.0)  | 42( 8.7)  | 484 |
| 안정제  | 26( 5.4)  | 21( 4.4)  | 481 |
| 드링크제 | 330(67.9) | 227(46.7) | 486 |
| 기타   | 10( 2.1)  | 6( 1.3)   | 476 |

2) 혼합사용율

약물의 혼합사용에 대해서는 242명(24.8%)의 학생들이 혼합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 담배를 제외한 다른 약물들에 대해서 현재 126명(12.7%)의 학생들이 혼합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한 126명중 54.8%에 해당하는 학생이 진통제와 드링크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혼합사용 빈도가 높은 약물을 순서대로 보면 드링크제, 진통제, 각성제, 수면제, 안정제, 진해제 순이었다.

술, 담배를 제외한 약물에서의 혼합사용 약물수는 평균 2.3가지로 조사되었다. 혼합사용실태에 대한 중고생

을 연구대상으로한 이길홍(1985)의 연구에서는 약물사용시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27.0%로 본 연구에서의 혼합사용 경험율 24.8%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나, 김소야자(1993) 연구에서는 약물사용시 한 가지만 사용한다는 경우가 58.6%,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경우는 7.2%로 조사되었었다.

한편, 술, 담배를 포함하여 술, 담배중 적어도 한 가지를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26명의 학생들이 술, 담배와 함께 다른 약물을 혼합사용하고 있었으며, 술, 담배만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142명(14.6%)으로 조사되었었다.

### 3) 성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사용

남자중에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58명(28.2%), 여자중에서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158명(56.4%)으로서 여자의 진통제사용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1$ ).

〈표 2〉 성별에 따른 일반의약품사용 비교

| 약물명  | 구분  | 남자        | 여자        | $\chi^2$ 값 |
|------|-----|-----------|-----------|------------|
| 진통제  | 사용유 | 58(28.2)  | 158(56.4) | 37.29 ***  |
|      | 사용무 | 148(71.8) | 122(43.6) |            |
| 수면제  | 사용유 | 22(10.68) | 15(5.38)  | 4.01 **    |
|      | 사용무 | 184(89.3) | 264(94.6) |            |
| 각성제  | 사용유 | 49(23.88) | 43(15.4)  | 4.88 **    |
|      | 사용무 | 157(76.2) | 236(84.6) |            |
| 안정제  | 사용유 | 12(5.83)  | 14(5.02)  | 0.035      |
|      | 사용무 | 194(9.42) | 265(95.0) |            |
| 드링크제 | 사용유 | 160(77.3) | 170(60.9) | 13.86 ***  |
|      | 사용무 | 47(22.7)  | 109(39.1) |            |
| 기타   | 사용유 | 7(3.40)   | 199(96.6) | 2.12       |
|      | 사용무 | 3(1.08)   | 276(98.9) |            |

\*\* $p < 0.01$ , \*\*\* $p < 0.001$

수면제와 각성제의 경우 남자의 사용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 < .01$ ,  $p < .05$ ). 피로회복제를 포함한 드링크제의 경우 남자는 160명(77.3%), 여자는 170명(60.9%)으로서 다른 일반의약품과 비교해서 남녀모두 사용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1996년 문화체육부에 의한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물사용경험율이 높았고 약물별로 보면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각성제의 경우 여자의 사용경험이 높은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부, 1996).

### 4) 친구의 사용과 일반의약품 사용과의 관계

친구가 진통제, 각성제, 드링크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각각의 약물사용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1$ ,  $p < .001$ ,  $p < .001$ ). 이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써, 이와 함께 이러한 약물사용이유에 대해서 37.4%(165명)의 학생들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28.8%(127명)이 '잠자지 않기 위해'로 조사된 것은, 발달과정 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갈등과 불안 등의 심리적 요소들이 독서실과 학원 등 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물리적, 환경적 영향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약물사용동기에 대한 이길홍(1985)의 연구에서, 잠을 안자기 위해(17.1%), 기분이 편한해지기 위해(6.6%), 괴로움을 잊기 위해(6.1%), 호기심으로(5.3%)라고 조사된 것과 유사하다.

### 5) 약물에 대한 태도와 일반의약품 사용율

약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약물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일반의약품 사용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p < 0.05$ ), 약물의 사용은 패인이 된다는 항목과 약물사용보다는 취미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군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보다 일반의약품 사용율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5$ ,  $p < 0.01$ ).

### 6) 지난달 사용과 현재 사용과의 관계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드링크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약물에 대한 지난달 사용유무와 현재 사용유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 사람중에 지난달 사용율이 5개 약품 모두에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p < .001$ ,  $p < .001$ ,  $p < .001$ ,  $p < .001$ ). 이와 같은 현재사용과 지난달 사용과의 관계를 통해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일회적으로 일반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진통제 14.21세, 수면제 14.63세, 각성제 15.37세, 신경안정제 16.33세, 드링크제 12.97세, 진해제 13.50세, 항히스타민제 15.00세로 나타났고 이는 이길홍(1985)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 지난달 사용과 현재사용의 관계분석

| 지난달 사용약물 구분 | 현재 사용 | 현재 비사용    | $\chi^2$ 값 |           |
|-------------|-------|-----------|------------|-----------|
| 진통제         | 사용유   | 86(41.6)  | 7( 2.64)   | 108.7 *** |
|             | 사용무   | 121(58.5) | 258(97.4)  |           |
| 수면제         | 사용유   | 9(25.0)   | 1( 0.23)   | 86.6 ***  |
|             | 사용무   | 27(75.0)  | 434(99.8)  |           |
| 각성제         | 사용유   | 13(14.6)  | 4( 1.05)   | 34.4 ***  |
|             | 사용무   | 76(85.4)  | 378(99.0)  |           |
| 안정제         | 사용유   | 4( 1.60)  | 3( 0.67)   | 28.2 ***  |
|             | 사용무   | 21(84.0)  | 443(99.3)  |           |
| 드링크제        | 사용유   | 139(43.3) | 11( 7.28)  | 59.8 ***  |
|             | 사용무   | 182(56.7) | 140(92.7)  |           |

\*\*\* p<0.001

3. 일반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각각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성별, 음주 및 흡연유무, 혼합사용유무, 친구의 약물사용, 부모의 약처방 준수유무이다. 각각의 약물에 따른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진통제사용 관련요인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볼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진통제를 사용할 위험이 0.281배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변량 분석에서 여자의 진통제 사용율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또한 처음 사용시기가 오래될수록 진통제를 사용할 상대적 위험이 1.275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4〉 진통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 변수명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비차비   | 95% C.I     |
|---------------|--------|-------|-------|-------------|
| 성별(1:남자 0:여자) | -1.271 | 0.221 | 0.281 | 0.048-0.490 |
| 처음 사용시기       | 0.243  | 0.095 | 1.275 | 1.129-1.319 |

2) 수면제사용 관련요인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볼 때 친구가 수면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제를 사용할 위험이 10.751배 만큼 현저하게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혼합사용유무에 따라서는 혼합사용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제를 사용할 위험이 5.269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부모가 약복용 처방을 준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제

를 사용할 위험이 0.362배 만큼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5〉 수면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 변수명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비차비    | 95% C.I      |
|-------------------|--------|-------|--------|--------------|
| 친구수면제(1:사용 0:비사용) | 2.375  | 0.453 | 10.751 | 9.868-10.774 |
| 혼합사용(1:유 0:무)     | 1.662  | 0.431 | 5.269  | 4.627-5.489  |
| 부모약처방(1:준수 0:비준수) | -1.015 | 0.459 | 0.362  | -0.111-0.807 |

3) 각성제사용 관련요인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 혼합사용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각성제를 사용할 위험이 2.927배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친구가 각성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각성제를 사용할 위험이 2.956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는 이변량 분석에서 각성제 사용 친구가 있는 것과 각성제의 사용유무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다.

〈표 6〉 각성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 변수명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비차비   | 95% C.I     |
|-------------------|-------|-------|-------|-------------|
| 혼합사용(1:유 0:무)     | 1.074 | 0.272 | 2.927 | 2.538-3.082 |
| 친구각성제(1:사용 0:비사용) | 0.954 | 0.352 | 2.596 | 2.140-2.844 |

4) 신경안정제사용 관련요인

친구가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경안정제를 사용할 위험이 4.958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7〉 신경 안정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 변수명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비차비   | 95% C.I     |
|---------------------|-------|-------|-------|-------------|
| 친구신경안정제(1:사용 0:비사용) | 1.601 | 0.689 | 4.958 | 4.071-5.449 |

5) 드링크제사용 관련요인

남자가 여자에 비해 드링크제를 사용할 위험이 2.721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친구가 드링크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드링크제를 사용할 위험이 11.623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8〉 드링크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별 비차비

| 변수명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비차비    | 95% C.I       |
|--------------------|--------|-------|--------|---------------|
| 성별(1:남자 0:여자)      | 1.001  | 0.269 | 2.721  | 1.911-2.449   |
| 친구드링크제(1:한다 0:안한다) | 2.453  | 0.370 | 11.623 | 10.788-11.528 |
| 복합사용(1:유 0:무)      | -1.135 | 0.298 | 0.321  | 0.010-0.606   |
| 처음 사용시기            | 0.229  | 0.112 | 1.257  | 1.095-1.319   |

복합사용유무에 따라서는 복합사용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드링크제를 사용할 위험이 0.321배 만큼 낮았고 처음사용한 시기가 오래될수록 드링크제를 사용할 위험은 1.257배 만큼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각 약물별 영향요인과 비차비를 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약물별 영향요인과 비차비

| 영향요인       | 진통제    | 수면제   | 각성제   | 신경안정제 | 드링크제   |
|------------|--------|-------|-------|-------|--------|
| 성별         | 0.281  |       |       |       | 2.721  |
| 복합사용유무     | 5.269  | 2.927 |       |       | 0.321  |
| 처음 사용시기    | 1.275  |       |       |       | 1.257  |
| 친구 진통제사용   |        |       |       |       |        |
| 친구 수면제사용   | 10.751 |       |       |       |        |
| 친구 각성제사용   |        | 2.596 |       |       |        |
| 친구 신경안정제사용 |        |       | 4.958 |       |        |
| 친구 드링크제사용  |        |       |       |       | 11.623 |
| 부모의 약태도    | 0.362  |       |       |       |        |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의약품사용 관련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여기서의 일반의약품은 진통제, 각성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링크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로 구분하였고, 연구도구는 한국청소년학회가 1993년 개발한 표준화된 설문지에서 선별하고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시 사용한 프로그램은 SAS/PC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경우 경험율은 드링크제 330명(67.9%), 진통제 216명(44.4%)으로 가장 경험율이 높고 현재사용율도 드링크제 227명(46.7%), 진통제 162명(33.3%)으로 이들 약물의 사용율이 다른 약에 비해 현저히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약물의 혼합사용에 대해서는 242명(24.8%)의 학생들이 혼합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술, 담배를 제외한 다른 약물들에 대해서 126명의 학생들이 현재 혼합사용을 하고 있었고, 약물별로 보면 진통제와 드링크제가 54.8%이었고 혼합사용 빈도가 높은 약물 순으로 보면 드링크제, 진통제, 각성제, 수면제, 안정제, 진해제로 조사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각각의 일반의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남자중

에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58명(28.2%), 여자중에서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158명(56.4%)으로서 여자의 진통제사용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1$ ). 수면제와 각성제의 경우 남자의 사용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 < .01$ ,  $p < .05$ ). 피로회복제를 포함한 드링크제의 경우 남자는 160명(77.3%), 여자는 170명(60.9%)으로서 다른 일반의약품과 비교해서 남녀모두 사용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넷째, 친구가 진통제, 각성제, 드링크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각각의 약물사용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1$ ,  $p < .001$ ,  $p < .001$ ).

따라서 일반의약품사용 결정요인 파악을 위해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드링크제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일반의약품사용의 결정요인은 혼합사용유무, 친구의 약물사용유무, 처음사용시기, 부모의 약처방 준수유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제 언

본 연구는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나 일반의약품의 사용 및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혼합사용에 대한 연구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무응답 처리되어 혼합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242명(24.8%)의 학생들이 혼합사용 경험이 있었고, 술, 담배를 제외한 약물들에서는 124명이 현재 혼합사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혼합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예측하게 하므로 가족과 또래집단을 포함한 환경이 함께 적절한 보건교육으로써 술, 담배를 포함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잠재된 위험을 알려 주어 약에 대한 유혹시 약물사용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경동, 이은숙(1989). 사회조사 연구방법. 서울 : 박영사.  
 내과학 상하(1986). 서울 : 학림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7). 신경정신과학. 서울 : 한나 의학사.



-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학회(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학회(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연구.
-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학회(199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지침서.
- 서울시 교육연구원(1988). 약물남용예방지도.
- 고복자(1991).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대한의학협회지; 34(11) : 1161-1171
- 고홍경(1990).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1995). 약물남용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등(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3(3) : 487-503
- 김윤희 외 2인(1985).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 정신건강 비교분석. 대한간호; 25 : 17-84
- 김재희(1995). 약물남용 청소년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기(1985).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약품광고. 마당; 46(6) : 68-69
- 김현수, 박인철(1989). 약물남용 청소년의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의대지; 14(4) : 91-97
- 민성길(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 대한간호; 29(3) : 6-11
- 박명운(1990).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3 : 115-126
- 박종규(1988).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명기 외(1981).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빈도 및 약물사용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연구. 신경정신의학; 20(2) : 243-248
- 소귀례(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탐색. 숙명여자대학교.
- 양종구(1992). 약물남용 청소년의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홍 외 5인(1985). 청소년비행의 약물 상관변인분석. 한국의과학; 17(2) : 130-147
- 이상영(1993).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련, 김정순(1995).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학교보건학회지; 8(2) : 257-275
- 이화자(1981). 부산시내 고등학생의 각성제 복용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잡지; 219(2) : 455-463
- 정성아(1983).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과 불안 및 우울성향과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왕기(1993). 약물남용실태조사. 한국약물남용연구소.
- 주왕기 외(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병원약사회지; 7(2) : 100-110
- 정성아(1993).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과 불안 및 우울성향과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화(1991).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적 개입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강의(1991). 청소년기 정서, 행동문제의 이해. 대한의학협회지; 34(11), 1144-1149.
- Huberty DJ, et al. Adolescent chemical dependency. Perspective in psychiatric care 1978; 16(1), 21-27.
- Kaminer, y. Adolescent substance abuse. Clinical Textbook of Addictive Disorders New york : Guilford Press, 1991.
- Moos RH, Billings AG.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Handbook of stress, New York : Mcmillan co, 1982.
- Sadava SW. Patterns of college student drug use. : A longitudinal social learning study Psychological Reports 1973; 33 : 75-86.
- Willis TA. Stress and coping factors in the epidemiology of substances abuse. Research advance.

– Abstract –

Key concept : Drug Use, High School Students

##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Drug Use in High School Students

*Lee, S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drug use and to find the main factors that lead students to start and select drugs in their circumstances. The “other drugs” in this study means analgesics, hypnotics, stimulants, tranquilizers, and drinks including caffeine. The sample was 1,900 students and 1,412 responses were analyzed. Variables in the study included prescription provision by parents, drug use by friends, attitudes to drugs, drinking and smoking activities, and poly drug us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 square, and, to find the determinants on other

drug us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Data were analysed by SAS/PC programs.

Of the subjects 86.6% of the students have had experienced with alcohol and 49.8% of them continue to use it, and 37.9% of the students have had experienced with smoking and 22.1% of them continue to smoke. The rates of using other drugs were as followed; analgesic 33.3%, hypnotics 4.3%, sedatives 4.4%, stimulants 8.7%, and 242 students have had experienced with more than two different kinds of drugs of the same time including alcohol and smoking. With the exception of alcohol and smoking, 126 students were continuing to use more than two different kinds of drugs. And 2.3 kinds of drugs were the average that were being used at the same time by poly drug users, alcohol and smoking excepting.

In conclusion, the determinants of other drug use can be summarized as poly drug use, drug use by friends, obedience to drug prescription of parents, and time of first using drugs.

---

\* Instructor, Dept. of Public health, College of Dongnam  
Instruct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Ansan  
Doctoral course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